결혼을 축하합니다

박정아 주임 04월 05일
(수출3A본부1부3팀)

신호승 주임 04월 12일
(수출6본부2부2팀)

이미영 주임 04월 19일
(수출3A본부1부3팀)

이경희 주임&나지현 주임 04월 26일
(수출1본부5부2팀&수출5A본부3부2팀)

장태은 대리&박초롱 주임 05월 24일
(수출3A본부1부1팀&수출5A본부7부1팀)

정보하 대리 05월 25일
(수출5A본부3부2팀)

배정민 대리 05월 31일
(수출1A본부7부1팀)

유길재 주임 06월 07일
(수출5A본부3부2팀)

현혜미 주임 06월 21일
(수출6본부2부3팀)

지상배 주임&정한솔 주임 06월 28일
(수출3A본부1부5팀&수출3A본부2부2팀)

응웬마이화 주임 06월 28일
(수출7본부1부2팀)

배순기 주임&위영화 주임 06월 29일
(수출3B본부5부2팀&수출6_7본부물류팀)

탄생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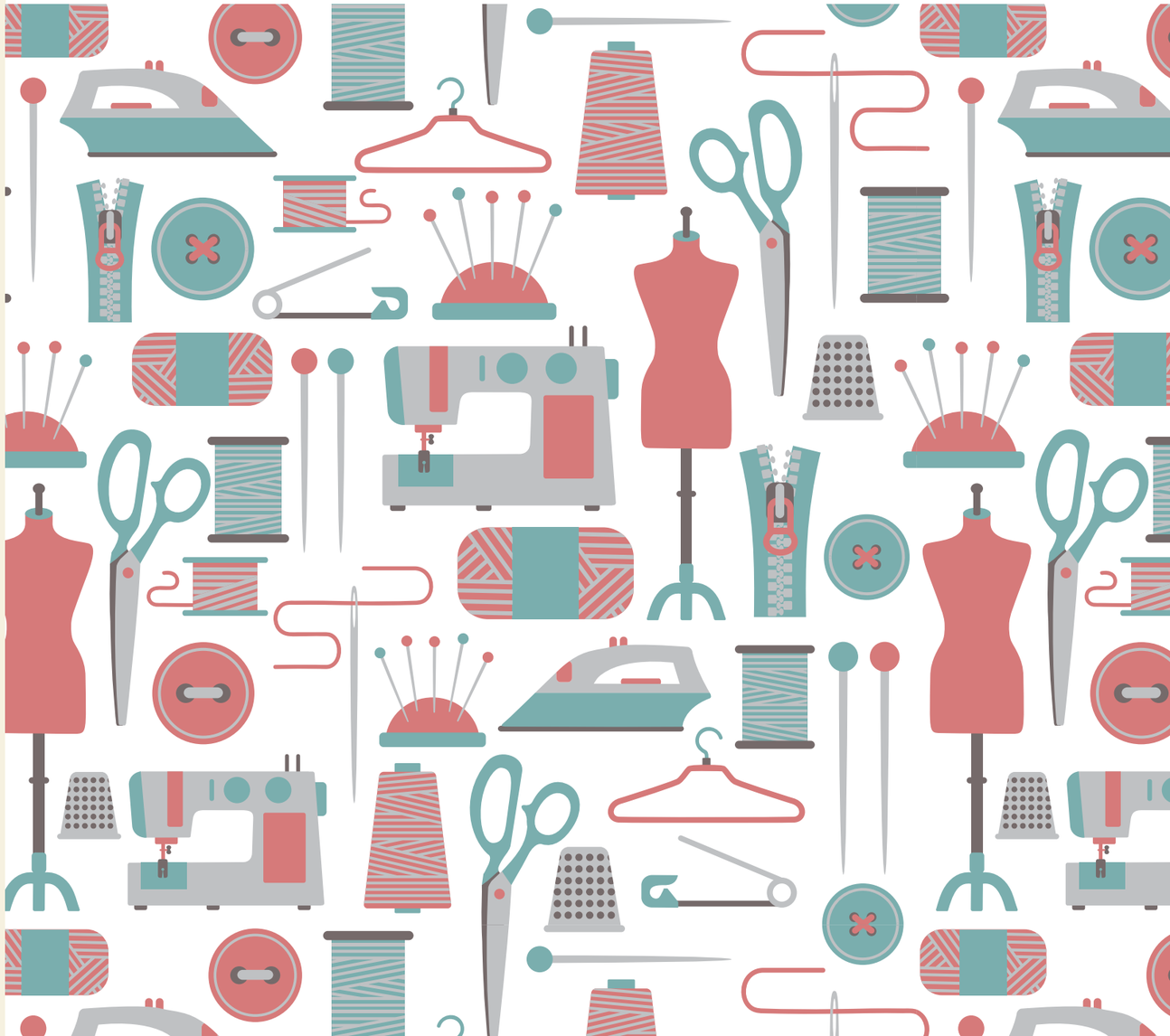
이래성 과장 04월 08일
(수출1B본부6부1팀)

서나리 대리 05월 21일
(수출3A본부2부2팀)

발행인 : 이용백 | 기획 : 한세 경영기획팀 | 통권 001호
발행 : 2014년 8월 7일 | 디자인 : (주)대통기획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웃을 입습니다

HANSAE;IN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001 SUMMER**



한세의 사보 창간을 축하합니다!

'사보를 보면 그 기업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보는 기업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는 수단인 것이지요. 우리회사의 진솔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한세in'. 사보 창간을 축하하며 많은 분들께 전달받은 축하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윤석재 대리 (니카라과 1공장) **GARCIAS, GRACIAS! 한세 Forever live HANSAE Nicaragua**

정은경 부실장 (VN CAD) 오래전 회사에서 꾸준히 봐왔던 사보지가 생각납니다. 그때의 일들이 지금은 추억의 뒤안길에 있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임을 되새기며 한세사보 창간이 더욱 기대됩니다. 멋진 이야깃거리의 나눔터가 되길 바라며…. 배진규 과장 (하노이 오피스) **하노이 오피스는 5살! 우리 막내, 한세 사보는 1살! 태어난 걸 축하하고, 32살 한세 아빠와 좋은 한가족 이루어 보자^^ 다시 한 번 우리 막내 태어난 걸 추카추카~**

정수의 주임 (VN 나이키영업1팀) 한세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좋네요!!!! 사보 창간 축하드려요^^~!!!

이진우 차장 (Hansae TN/VN/TG – FKR) **한세 사보 매우 기대됩니다. 글로벌 기업인만큼, 가족과 떨어져서 해외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서라 과장 (한세예스24홀딩스 경영기획팀) **반갑다, 사보야~ 지금은 분기에 한 번 만나지만 곧 자주 보게 되겠지, 50번 100번 즐겁게 만나자~** 김혜진 과장 (6,7본부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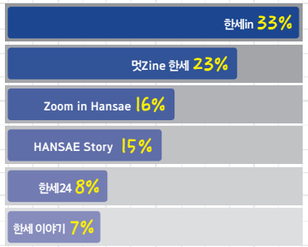
사보 창간 감축드리옵니다~ 여러 가지 재밌고 흥미로운 기사들이 무척 기대됩니다. 김은미 과장 (나이키1팀)

한세 사보 창간을 축하합니다!!! 40주년에도 계속 한세실업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주임 (712팀) **한세 사보 창간 축하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멋진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성 과장 (3A11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사보 경진대회 '인스파이어 어워드(Inspire Award)'에서 당당히 1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열심히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영 상무 (Coordinating부본부) **대박 뉴스! 대기업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회사 사보'를 우리 한세 에서… 드디어 대기업 승격 축하!!!!! 박대통령 베트남 공장 다녀가신 다음으로 대박 뉴스에 완전 감동!!! 빨리 보고 싶네요. 다시 한 번 축하해요 한세.** 유재송 주임 (R&D 디자인2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한세 사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LOVE HANSAE!** 이유미 대리 (5A51팀) **제가 모르고 지나쳐버릴 한세 곳곳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소식통, 시즌마다 기다려지는 사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석형 대리 (Compliance 팀) 늘 활짝 웃을 수 있는 기쁜 소식들로만 채워지는 힐링(Healing) 사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해숙 과장 (565팀) **제가 평가 내렸던 한세 사보가 드디어 발간한다니 정말 기쁘고 축하합니다. 앞으로 한세인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신태식 부장 (수출7본부 1부) '축 발간' 드디어 발간되었네요. 한세 사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진정한 한세인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호 '한세in'이 탄생하기까지

BEHIND EPISODE

평범하지만 익숙한, 쉽지만 친근한 우리회사만의 사보 제호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한세in'인데요. 사내에 제호 공모를 했을 때 재기발랄하면서도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심 끝에 탄생한 '한세in'은 설문조사 결과 33퍼센트의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호 공모에 많은 한세인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비록 제호는 되지 못했지만 나름의 재기발랄함으로 눈에 띄었던 몇 개의 아쉬운 후보들을 공개합니다. **'한세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사보를 읽습니다'**는 비록 사보 제호 치고는 조금 긴 이름이지만 재치있는 위트로 주목 받았습니다. 무엇을 패러디한 지 한세인이라면 금세 아시겠지요?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가 만든 옷을 입는다'는 우리회사의 광고 문구에서 착안한 것이죠. 디자인까지 해서 주신 열혈 응모자도 있었고, 뉴욕타임즈에 버금가는 '한세TIMES', 심플함과 미니멀함을 강조한 '한세사보'를 후보로 추천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세in'**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인 셈이지요.

읽는다

매일 부자재 주문하고, 샘플 발송하고, 퀵아저씨와 싸우고,
에이전트 들어가서 회의하고, 출장가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월급 명세서가 메일로 날라오고, 날라온 월급 명세서 보다 10초 후에 또 다시 주문하고, 발송하고, 회의하고.
반복된 업무 안에서 그 모습이 한세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다니시나요?
분기마다 발간되는 사보를 읽으면 너와 내가 모여 만들어진 한세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보한다

나 혼자 알기 너무 아까워서 입이 근질근질한 이벤트, 행사 모두 제보해 주세요.
"우리팀 이렇게 잘해서 바이어에게 칭찬받았어요!" "우리 야유회 다녀왔어요!"
"이렇게 재밌고 독특한 회식문화도 있습니다!" 부터 "저 출산했어요, 결혼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편집장에게 요구해 주세요! 제보해 주신 사연(?)이
사보에 실릴 경우, 저 편집장이 책임지고 선물 챙겨드릴께요~
저 그렇게 경우없는 사람 아니랍니다^^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동아리 이번에 큰 행사 하나 있는데, 취재좀 오시죠!!"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편집장이 카메라 짊어지고 달려갑니다.
어떤 형태의 이벤트라도 상관 없어요. 일단 한번 찔러봐 주세요. "3본부와 5본부 미혼 남녀가 모여 집단 미팅 합니다!!" 이런 이벤트도 상관 없습니다.
"평소 모델이 꿈이였는데, 저 cover 모델 한번 시켜주세요!!" 해도 달려갑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사보 관련 다양한 의견 듣습니다. 편집장에게 연락해 주세요~ jinah1209@hansae.com (내선: 993)

첫 발행되는 우리회사 사보! 사보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한세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최신 사내 소식부터 사우 동향까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사보 〈한세in〉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한세를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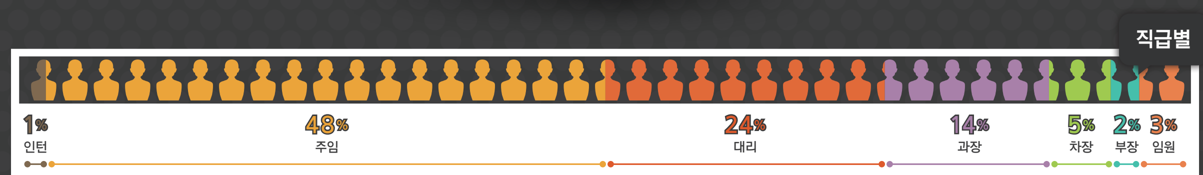
1982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해 온 우리회사. 그 속에 한세인들의 땀방울이 담겨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를 기록해 온 우리들의 시간을 숫자로 그려보았습니다. 한세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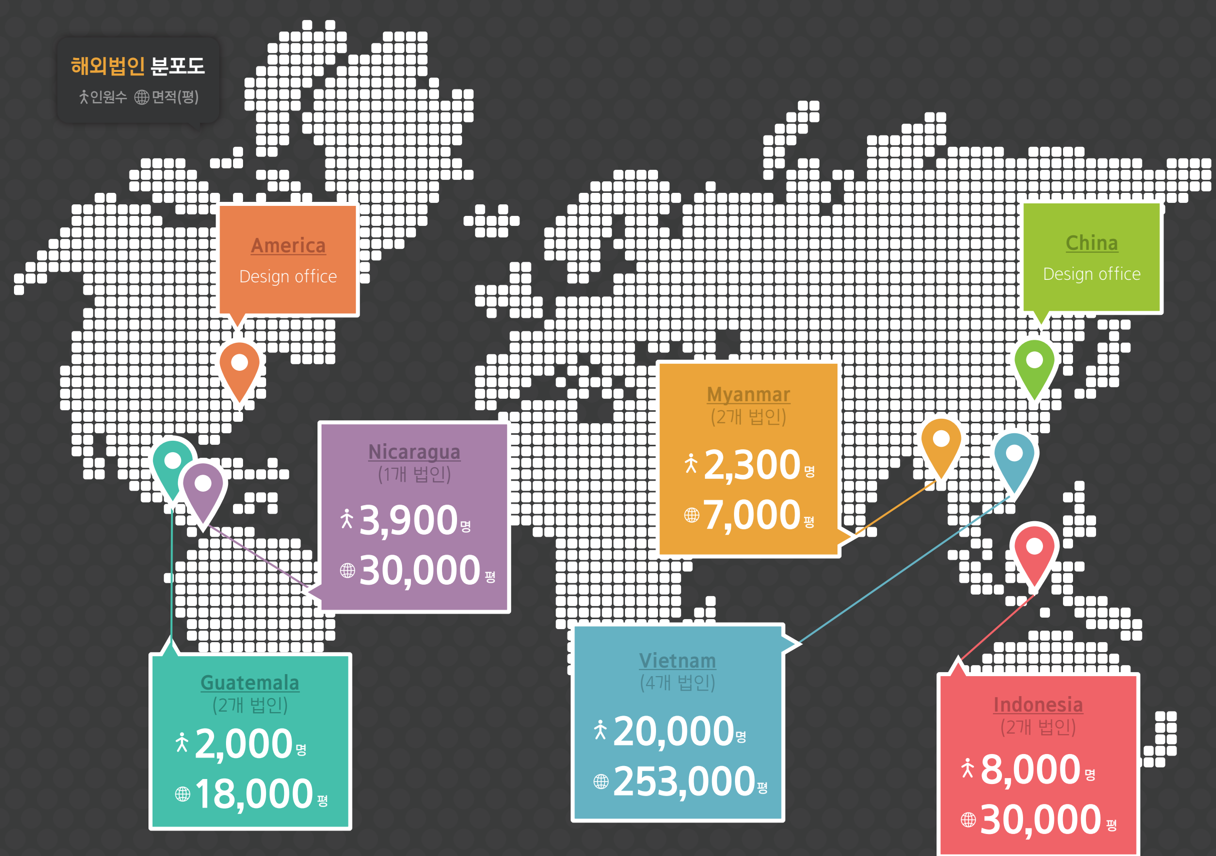
남 vs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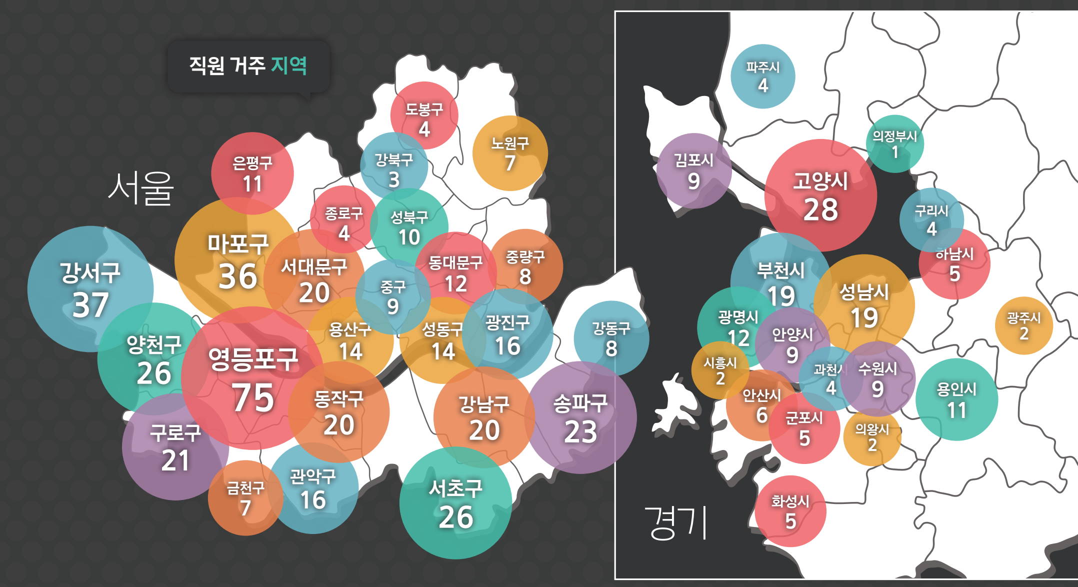
국내 285 370

488 474

해외 203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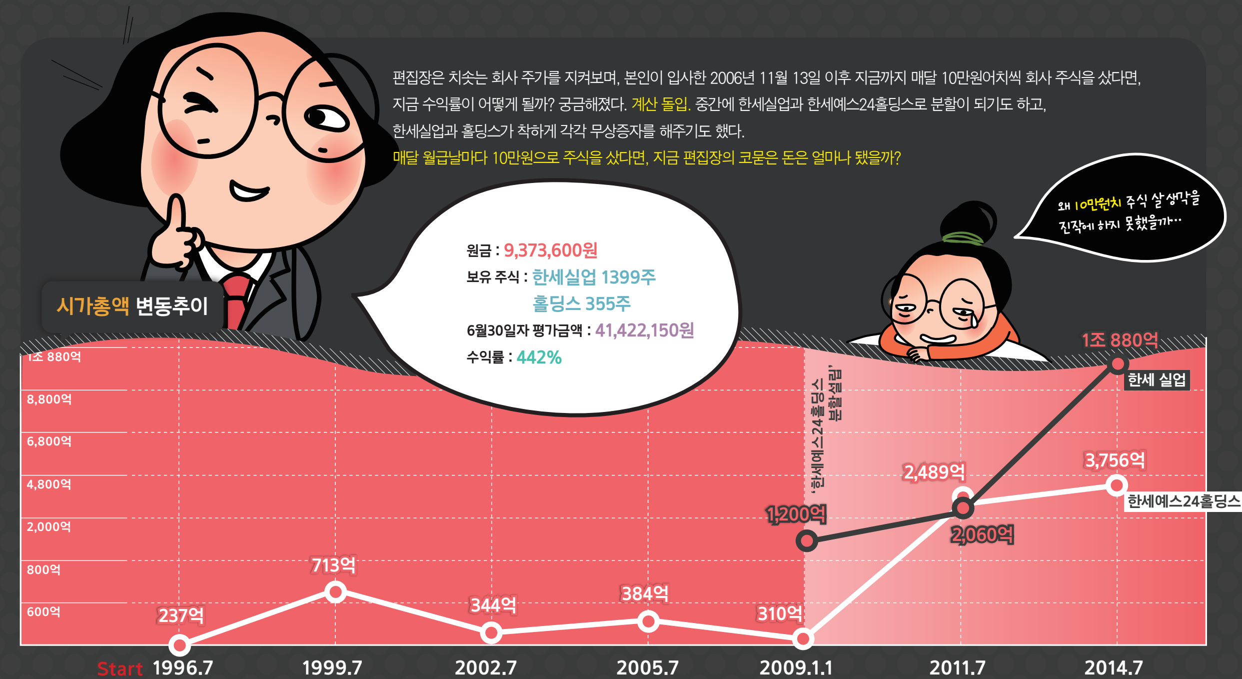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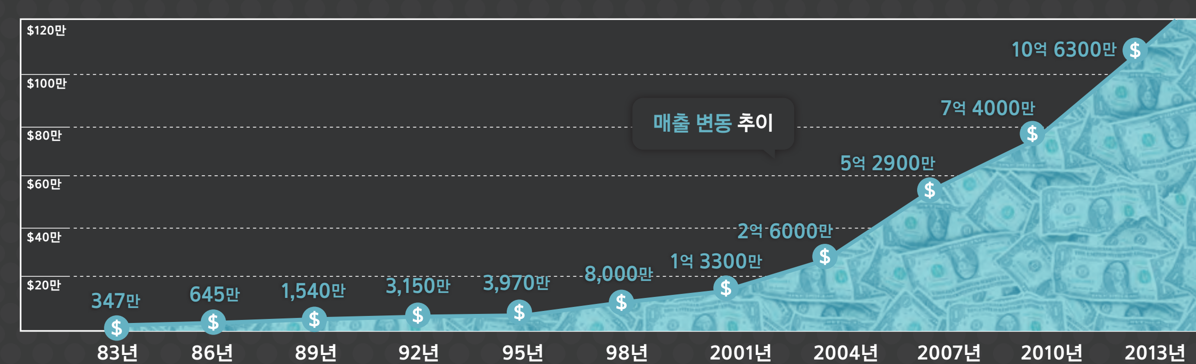




편집장은 치솟는 회사 주가를 지켜보며, 본인이 입사한 2006년 11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매달 10만원어치씩 회사 주식을 샀다면,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다. 계산 돌입. 중간에 한세실업과 한세예스24홀딩스로 분할이 되기도 하고, 한세실업과 홀딩스가 착하게 각각 무상증자를 해주기도 했다.

매달 월급날마다 10만원으로 주식을 샀다면, 지금 편집장의 코묻은 돈은 얼마나 됐을까?





트렌드의 메카 New York 뉴욕으로 떠나다

지난 5월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22명의 한세인들이 트렌드를 이끄는 패션의 도시 뉴욕을 방문했다. 단연 돋보이는 우리회사의 옷을 통해 세계 속의 한세를 엿볼 수 있었다.

올해 22명의 한세인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뉴욕연수를 다녀왔다. 우리회사에서는 2002년부터 우수사원을 대상으로 미주지역 연수를 시행해왔다. 해마다 20여 명의 대상자를 뽑아 해외 유명 마켓의 생생한 모습과 한세실업이 생산한 제품이 어떻게 진열, 판매되고 있는지 견학하기 위함에서다. 이번 연수에서는 뉴욕오피스 직원을 만나 현지 바이어의 동향을 들은 후, 실제 한세 바이어의 매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인이 한세가 만든 옷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세'를 만나다

6월 26일~29일, 6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끝내고 당당하게 정직원 전환을 이룬 50명의 신입사원들이 베트남 연수를 다녀왔다. 신입사원 연수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 한세실업이 가장 역점을 두고 꾸준히 진행하고있는 행사로, 90년대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해외연수를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한세실업의 '주임'이 된 50명의 직원은 제1생산기지인 한세베트남에서 업무 소개를 받고, VN(1법인), TN(2법인), TG(3법인)를 차례로 돌아보며 현장 이해력을 높였는데, 어마어마한 한세실업 해외법인의 크기에 놀라고, 매우 열심인 법인 파견 직원들의 열정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베트남까지 가서 시내관광을 빼먹을 순 없는 법! 호치민의 명소 노트르담의 성당 앞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호치민을 대표하는 공연인 수상 인형극도 관람했다. 한세인에게 업무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는 쇼핑을 위해 사이공 스퀘어, 벤탄시장도 방문하였다.

꿈같은 베트남에서의 3박5일간의 연수 기간이 끝나고, 현업으로 돌아온 주임님들 모두 한세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한세인의 야근 그리고 야식

2013년 한세인 잔업식비 37,443건 전격 분석!

2013년 야근하는 한세인들은 어디서 무얼 먹었을까? 잔업식비 전격 해부, 37,443건 분석! 역시, 한국인은 밥! 밥심으로 산다! 전체의 26%가 밥집에서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전문점, 빵, 패스트 푸드, 분식, 편의점, 도시락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1위 음식점을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먹고 빨리 일하자는 마음일까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야근식비 지출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1위 = 한세인이 꼽은 야식 맛집. 소개해 드립니다.

세프의 국수전

정우빌딩 1층에 위치한 세프의 국수전. 깊은 사골 육수에 8가지 한식 재료가 들어간 토핑 국수인 '세프의 국수'가 이 집 대표메뉴. 간단한 국수를 먹은 것 같지만, 8가지 토핑이 들어가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국수 외에 돈부리류도 인기이다.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1층

가격 : 4,500원~7,000원

CAFFÉ PASCUCCI

한세실업 사원증 10% 할인의 힘일까. 파스쿠찌가 스타벅스를 누르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하였다. 혹시 한세인 할인을 아직 몰랐다면, 앞으로 파스쿠찌 갈 때에는 한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법인카드, 명함 등을 챙겨 가서 10% 할인을 누리도록 할 것.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5 안원빌딩 1층

가격 : 3900원~6500원(음료류), 3000원~6000원 (베이커리류)

PARIS CROISSANT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빠크! 2,436건으로 전체순위 1위를 차지 했다. 파리크라상은 정통 프렌치 스타일의 프리미엄 베이커리로, 샐러드, 샌드위치 및 다양한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 팀원들 각각의 입맛에 맞게 여러 종류의 야식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야식 1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남중빌딩 1층

가격 : 3500원~

KFC

2013년 1월, 드디어 서여의도에 패스트 푸드점이 들어왔다! KFC!! 간단히,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 푸드가 야식 메뉴로 인기이다. 뒤따라 버거킹도 서여의도에 입성했으나, 1등으로 들어온 KFC에 의리를 지키는 한세인. 패스 푸드에서는 KFC가 간발의 차이로 버거킹을 누르고 야식메뉴 1위를 차지했다.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극동VIP 1층

가격 : 2500원~

이밖에도, 정우빌딩내의 김가네 김밥, 위드미, 장타이펑이 각 분야별 1위를 차지하며, 야식은 가까운 곳에서 빨리 사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한세와 만나는 **추억**의 **사진 한 컷**

신입사원 첫 연수 때의 설렘.
웃음 가득한 야유회의 풍경,
파란만장했던 이사의 기억까지.
한세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니
닿은 발자국마다 추억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흔적들은
사진 한 컷 한 컷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2001 한세 첫 광고 촬영
부회장님

민순아! 밀어서 미안해!!
2011년 지원팀장 _ 한라산등반

우리도 이런 폼폼할 때가..
1998년 신입사 원연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2009년 가나안 농군 학교

2006년 지원부서 야유회 초청기 외국인 직원

사이좋은 행정총괄과 회계장(안분아저씨)
2008년 베트남 근무 시절 (붕따우 야유회)

한세in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응원 풍경

오래된 직원 VS 신입사원

2014 디자인1팀 Baby Shower

이사의 추억

저희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2007년 신년회

2012년 hanes팀 야유회
우리 팀웍 짱!

2009년 크리스마스_ 베트남 기숙사의 최저한 변신

하노이 오피스 미인들 입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돼지머리와 함께 한세사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_하노이 오피스

2010년 전체워크샵
2010' 한세실업(주) 전직원 Workshop

2001' 사이판 근무 시절

2005년 니카라과 근무 시절 (칸쿤여행)
우리도 귀여울 때가..

2008년 신입사원

니카라과 전출!! 이맛이지!!
2010 니카라과 근무 시절 (산후안)

2005년 LA연수

NEWS HANSAE

제8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

한세실업은 전국 바둑명문 20여 개 대학을 초청하여 모교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학사 바둑인들의 축제인 '릴레이 대학동문전(주관:대한바둑연맹, 주최:바둑TV)'에 꾸준한 후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 결승전이 바둑 TV 스튜디오에서 펼쳐졌고, 한국외대가 최종 우승하였다. 경영지원본부장 채육호 상무는 결승전 시상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동문전'을 통해 한국바둑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스코 유아패션 및 출산용품 전문 브랜드 '모이몰른' 한·중 동시 런칭

한세실업의 자회사 드림스코는 신규브랜드 '모이몰른(Moimoln)'을 한 · 중 동시 런칭하였다. '모이몰른'은 북유럽 감성을 담은 육아용품 브랜드로 유아 의류, 출산용품, 유아 침구류 등이 주요 상품군이며, 업계최초로 아이 피부에 닿는 모든 내의류 100%에 항균, 항취 기능이 가공된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6월 19일 창원 대동백화점에 오픈한 1호점을 시작으로 연내 30개 이상의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 **대상 수상**

한세실업은 지난 6월 3일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 대상'에서 기업문화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며, 조직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위한 팀장제 도입, 소통을 위한 모닝데이트 & 조깅 미팅 진행, 올바르고 바람직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신입사원 교육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기쁨을 얻었다.

뛰어라 우리 아이 캠페인
축구공 드림 이벤트, 리틀 K리그 축구대잔치

한세실업은 지난해부터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과 도전정신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뛰어라 우리 아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꽝 없는 100% 즉석당첨 축구공 드림 이벤트'와 '제2회 컬리수 축구대잔치-리틀 K리그'를 후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축구 꿈나무를 응원할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 선정 100대 기업
섬유부문 1위 차지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가 국내외 경기침체를 딛고 뛰어난 실적을 올린 '2014 대한민국 100대 기업'을 선정하였다. 매출 1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율, 주가변화를 분석한 이번 자료에서 한세실업은 종합순위 53위, 섬유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세실업은 한국을 넘어 세계 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이용백 부회장 국무총리상 수상

지난 4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 1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용백 부회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 부회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등 공정문화 자율준수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테니(StenNY) 런칭

한세실업은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와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등을 활발히 소개하고 있는 **GS**샵과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 '스테니(StenNY)'를 런칭, 2014년 3월 30일 첫방송 하였다. '스테니'는 뉴욕감성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베이직 아이템이 중심이며, 실크 등 고급소재를 사용해 기존의 브랜드보다 높은 질을 추구한다. 첫방송 이후 대부분의 제품이 완판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스테니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직급별 **워크샵** 진행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총 7번에 걸쳐 직급별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직원들의 전반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워크샵은 조직속에서 역할분담과 협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애사심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세실업은 인재개발 추구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대내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HANSAE TN 법인 베트남 짱방 지역 고등학교에 **장학금 지원**

5월 17일, 베트남 TN법인은 짱방 인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짱방 내 고등학교 학생 4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한세실업은 2003년부터 VN법인 구찌지역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7개 고등학교, 2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TN 법인에서도 인근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3차 **인턴 채용**

2014년 6월 12일, 13차 인턴 34명이 첫 출근을 하였다. 4월 14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1차~4차까지의 면접을 통과한 34명의 인턴은 6개월 후 정직원 전환의 기회를 얻게 된다. 2주간의 인턴교육 후, 23일 영업본부에 24명, 지원본부에 7명, R&D본부에 3명이 배치되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경험을 쌓기 시작한다.